

# 서울 고층집합주택의 전개와 아파트 살림살이

남근우 (南根祐)

동국대학교

## 1. 머리말

한국에서는 積層의 집합주택을 흔히 ‘아파트’ 라고 부른다. 일본의 ‘맨션’ 이나 중국의 ‘公寓 (공위)’ 에 해당하는 말로, 대개는 5, 6 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일컫는다. 이 고층집합주택과 그 집합지구인 ‘아파트단지’ 를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서울에는 적지 않다. 아파트에서 태어나, 단지 내의 어린이놀이터와 학교에서 幼年期를 보낸 이가 많기 때문이다. 이어, 어른이 되어서도 아파트에 살기 위해 갖은 애를 쓰다, 이윽고 늙어 죽어가는 이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今年 봄 서울역사박물관이 「아파트人生」 이란 기획전을 연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겠다. 그 展示資料에 따르면, 2014 년 3 월 현재, 서울시의 모든 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58.9%이며,<sup>1</sup> 급후 구입을 희망하는 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71.6% 나 된다. 人生의 희노애락을 아파트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이가 大半을 훌쩍 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아파트人生’ 을 살아가는 건 물론 서울 사람들만이 아니다. 한국에서 아파트 보급률이 가장 높은 도시는 光州이며, 그 다음이 蔚山, 大田, 大邱, 釜山, 仁川 순으로, 서울은 7 대 대도시 중에서 맨 꼴찌다. 最近에는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서도 아파트 거주인구가 부쩍 늘고 있다. 웬만한 邑面의 소재지 치고 고층아파트 몇棟 들어서지 않은 곳이 드물 정도다. 이른바 ‘논두렁 아파트’ 나 ‘밭두렁 아파트’ 라고 불리는 것들로, 주변의 外觀이나 風光을 해치는 殺風景을 만들어내기 일쑤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고층집합주택 투성이인 ‘아파트의 나라’ 가 된 것일까? 서구와는 다르게, 한국사회에서는 왜 중산층은 물론 상류층까지도 아파트살이를 좋아하는 것일까? 서울시민의 7 할 이상이 아파트 생활을 꿈꾸고, 더 넓고 좋은 고층집합주택을 욕망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리고 아파트란 삶터에서 실제 일상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영위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종래의 ‘전통적인’ 생활방식과 어떠한 연속 혹은 불연속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일까?

이번 報告에서는 이 몇 가지 물음을 풀어보는 것으로 나에게 주어진 과제 연구를 갈음하고자 한다. 단, 지금까지 한국의 민속학연구는 주위에 널려있는 고층집합주택과 日常의 아파트살이를 尙象化한 적이 없었던 까닭에, 以下에서는 인접 학문의 연구 성과들을 援用하면서,<sup>2</sup> 이제 막 시작한 약간의 아파트 조사와 20 여년에 이르는 나 자신의 아파트살이 경험을 살려, 本論을 펼쳐나가고 싶다.

## 2. ‘아파트공화국’ 의 탄생

한국 사람들이 고층집합주택 (아파트) 에 살기 시작한 것은 1950 년대의 후반 무렵이다. 일반적으로는 1958 년에 大韓住宅營團이 서울시 城北區 鐘岩洞에 세운 鐘岩 (중암) 아파트 3 개동이 그 효시로 알려져 있다. 이후 수십 년간 온 나라를 아파트로 메워온 한국사회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아파트공화국 (The Republic of Apartments)’<sup>3</sup> 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형성 과정을 개관하면, 우선 고층집합주택 (아파트) 의 畫期的 轉機는 60 년대 초에 마련되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朴正熙 정부가 ‘經濟開發五箇年計畫’ 을 막 시작할 무렵이었다. 慢性的인 住宅難解消을

‘경제개발’의 일환으로 간주하며 주택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는데, 그 담당주체는 대한주택영단을 확대 개편한 大韓住宅公社였다. 한국의 경우, 서구와 같은 社会住宅 혹은 영구적인 賃貸住宅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한 군사정권은, 국가가 企業的인 방식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公社를 설립했다. 한국의 주택정책이 社会福祉 차원이 아니라 建設産業의 일환으로 시작된 까닭이다 [林瑞煥 2005:40-43].

이 대한주택공사가 야심차게 내놓은 첫 작품이 麻浦(마포)아파트다. 한국 최초의 団地型 아파트로, 주거문화의 근대화를 기대하며 1962년 麻浦区 桃花洞에 세워진 10개동의 공동주택이었다. 당시 준공식에 참가한 朴(박) 대통령은 “旧來의 姑息의이고 봉건적인 생활양식에서 脫皮하여 현대적인 집단 생활양식을 취”할 수 있는, “생활혁명의 상징이 바로 麻浦아파트” [대한주택공사 2002:38] 라고 그 역사적 의의를 강조했다. 실제 麻浦아파트는 세대별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난방설비와 水洗式 便所를 처음으로 갖추었고, 立式生活를 지향하는 서구풍의 살림살이 방식을 선보였다. 또한 넓은 대지 위에 6층으로 세워진 이 아파트는 많은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여 녹지 위의 고층 住居로서 풍요로운 햇살과 바람,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集合住宅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다 [田南一 외 2008:193-195].

하지만 이러한 대한주택공사의 期待와는 다르게, 집합주택에 대한 人氣가 처음부터 높았던 것은 아니다. 麻浦아파트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기왕의 아파트는 대개 10坪 미만의 小型으로 貧民窟의 이미지가 강했고, 또한 연탄가스 사고에 대한 不安이나 아파트살이의 물질적, 기술적 여건에 대한 정서적 違和感 역시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5개년계획으로 1968년에 착수한 京畿道 ‘廣州(광주)大團地造成事業’의 霧散과 1970년 4월 8일에 발생한 麻浦区 倉前洞(現西江洞)의 臥牛(와우)아파트 崩壞事故는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庶民層이 아닌 中産層 중심의 아파트단지 건설로 그 타깃과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1971년 한강변의 東部二村洞에 세워진 漢江(한강)아파트는 이른바 近隣住区(neighborhood unit) 이론에 기초한 대규모 단지로, 10년 후 한강의 남쪽 지역에 대량으로 세워질 고층아파트 단지의 선구적인 모습이었다. 때마침 발표된 江南(강남)開發計畫은 대단지아파트 건설을 더욱 부추겨, 盤浦(반포)아파트와 蠶室(잠실)아파트를 비롯한 超大型 아파트단지가 한강을 따라 雨後竹筍처럼 솟아났다. 대한주택공사가 조성한 이 아파트단지들에 대한 인기가 폭발하면서 民間企業의 아파트 건설 참여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70년대 후반 (株)現代建設이 江南區의 鴨鵝亭洞에 지은 現代(현대)아파트가 그 대표적인 단지로, 가장 작은 게 35평, 큰 것은 60평으로 이미 중산층 아파트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었다.

결국 70년대 중후반 이후 정부의 주택정책과 건설회사의 利益 創出, 그리고 新興 中産層의 住宅需要 등이 맞물리면서, 고층아파트가 강남의 대표적인 주거양식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 그리고 서울올림픽 直後, 盧泰愚(노태우) 政權이 추진한 주택 200万户 건설계획은 서울시 전체와 수도권 일대, 나아가 전국의 지방도시를 아파트천지로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그 사이 아파트에 대한 세간의 인식도 크게 달라지는데, 1993년을 起點으로 고층집합주택은 選好度에서 단독주택을 上廻하게 되었다 [康仁鎬 外 1997: 104-105].

이처럼 단기간에 게다가 대규모로 고층집합주택(아파트)이 普及, 擴散된 배경과 원인에 대해선 실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예컨대 좁은 국토와 인구과밀, 핵가족화, 세대변화, 여권신장, 중산층의 성장, 도시화와 郊外化, 고층집합주택 중심의 주택정책, 민간아파트 건설의 높은 収益率 등이다. 이것들 중에는 원인과 결과가 뒤섞인 견해도 적지 않은데, ‘아파트공화국’ 誕生의 要因을 거칠게 정리하면, 다음의 두 가지로 간주될 수 있겠다. 하나는 供給 측면에서 고층집합주택을 大量으로 지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需要 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단지를 선호했다는 것이다.

우선 공급 면에서 볼 때, 아파트 건설은 軍事政權과 文民政權을 불문하고 정부 주택정책의 根幹이었다.

한국의 아파트는, ‘마치 성냥갑 같다’ 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가장 효율적인 주택공급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高層化와 高密化를 통해 작은 토지 위에 주택의 대량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성냥갑 아파트’ 는 시대적으로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빠르고 값싸게 주택을 공급하려면, 아파트를 規格化하는 방식이 경제적으로도 유리했던 것이다. 단지 조성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여러 건설현장에서 돌려가며 쓸 수도 있었고, 설계를 다시 할 필요도 없어, 당연히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이었다. 대한주택공사는 1982년부터 소위 ‘住宅基本設計’ 를 매년 발간했는데, 이에 기초하여 아파트를 문자 그대로 ‘찍어냈다.’ 2008년 서울시가 ‘디자인 서울’ 을 표방하면서 이른바 포디즘(fordism) 스타일의 주택공급시대가 막을 내리고, 성냥갑 아파트는 그 역사적 所任을 다하게 되었다 [田相仁 2009:47-49].

### 3. 아파트團地를 選好하는 이유

아파트에 대한 비판은 지금 못지않게 예전에도 거셌다. 그것은 市民들의 삶을 画一化하고 도시 환경을 攪亂하는 主犯이라는 게 건축 전문가들의 공통된 主張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主張은 서울의 住宅 現實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7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일기 시작한 아파트의 人氣는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하늘을 치솟았고, 아파트살이를 選好하는 사람들의 수는 爆發적으로 늘어만 갔다.

그 주된 要因의 하나로, 아파트團地가 갖고 있는 주거환경의 비교우위를 들 수 있겠다. 아파트가 人氣를 독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團地’ 로 개발되었기 때문이고, 그 背後에는 한국의 都市 공간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는 사정이 자리 잡고 있다. 7, 80년대 수출증대와 경제성장의 總力戰에 突進한 한국의 경우, 빠르게 증가하는 住宅需要에 부응할 만한 주택공급정책을 펴기가 쉽지 않았다. 都市 환경은 劣惡한 상태로 放置되기 일췌였고, 주거 환경에 대한 市民들의 욕구는 점점 높아지는 狀況에서, 이 딜레마를 벗어날 수 있는 脫出口가 바로 아파트단지였다. 도시 환경에 대한 大規模 투자 없이도 단지별로 綠地, 어린이놀이터, 停車場, 기타의 편의시설들을 갖춘, 꽤 괜찮은 ‘동네와 집’ 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단독주택 지구에 비해 아파트단지는 그야말로 別天地다. 저녁마다 치러야 하는 ‘駐車戰爭’ 을 피할 수 있고, 곳곳에 녹지대와 어린이놀이터도 한두 개쯤은 다 갖추고 있다. 最近에는 스포츠클터나 수영장, 독서실 등 소위 커뮤니티 施設을 두루 갖춘 단지들로 進化하고 있다. 무엇보다 고층 住居棟들의 隣棟 간격에 맞춘 폭넓은 外部空間이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엄두도 못 낼 개방적 空間感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고 있다. 이런 단지의 魅力이야말로 아파트가 人氣를 얻게 된 核心的 要因으로, 말하자면 아파트단지는 劣惡한 도시 公共空間 환경 속에 자리 잡은 私設의 오아시스인 셈이다 [朴寅碩 2013:18-24].

또 하나, 아파트가 富의 源泉이자 ‘財테크’ 의 手段이었다는 점 역시 한국인이 아파트를 選好하는 중요한 要因으로 빼놓을 수가 없겠다. 한국은 ‘집 한 채가 財産의 전부’ 라고 흔히 말할 정도로 주택 소유에 대한 집착이 대단히 강한 社會다. 적어도 ‘집 한 채는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라는 정서가 澎湃한 나라가 한국이다. 이처럼 ‘집 한 채’ 의 의미가 막중한 狀況에서 아파트 가격이 단독주택의 그것을 월등히 上廻한다면,<sup>4</sup> 누구라도 아파트 所有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아파트 選好는 選択이 아니라 必須가 될 개연성이 아주 높다. 실제 서울올림픽 개최를 전후하여 서울시내 아파트 價格은 대폭 상승했다. 전반적인 景氣好調로 전국민의 實質所得이 급증하여 유통성이 極大化하던 때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1997년 IMF의 救濟金融 이후에는 아파트 가격의 공간적 兩極化가 深化되어, 自家 소유층 내부의 階層分化가 대폭 확대되었다. 같은 종류 같은 크기의 아파트라도 그 位置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자가 된 이들 중에는 아파트로 돈을 번 경우가 많았다. 이른바 ‘不動産 不敗 神話’ 가 계속

이어지면서 아파트가 가장 보편적인 財테크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수십 번에 걸쳐 다양한 不動産 対策을 쏟아냈지만, 不動産시장의 耐性만 키운 채 대부분은 失敗로 끝나고 말았다. 그 사이 사람들은 非人氣 地域에서 ‘버블 세븐’<sup>5</sup> 등의 人氣地域으로, 작은 坪數에서 큰 坪數로 이른바 ‘갈아타기’를 계속하면서 財産을 불려갔던 것이다. 아파트에서 門牌가 사라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문패의 失踪은 개인의 機密이나 사생활을 保護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빈번한 이사에서 그 현실적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sup>6</sup> 서울 사람들에게 있어 財테크 수단의 성격이 강한 아파트는 증시의 블루칩처럼 수시로 팔고 사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全相仁 2007: 91-93].

덧붙여, 서울의 아파트는 사회적 신분의 심볼로 기능하는 傾向이 강하다. 주지하다시피 서구에서는 单独住宅 중심의 上流層 住居文化를 郊外에 정착시켰다. 이와 다르게 한국의 中산층과 上류층은 주로 都心 내부의 아파트단지, 서울의 경우는 특히 강남지역의 고급스러운 단지에서 자신들 나름의 住居文化를 생성, 발전시켜 왔다. 한국에서 ‘강남의 아파트에 산다.’고 말할 때, 그것은 일종의 ‘記号의 消費’이며, 그 고가의 단지 거주는 사회적 支配階級에 의한 일종의 ‘區別짓기(distinction)’ 行爲라고도 볼 수 있다 [全相仁 2009:67-70]. 그러한 공간적 差異化의 과정에서 아파트의 위치와 坪數에 크게 집착하는 주택의 過消費 現象이 나타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그 하이라이트가 江南区 道谷洞의 타워팰리스로 象徵되는 최근의 브랜드 아파트의 등장이다.

#### 4. 고층집합주택의 土着化와 아파트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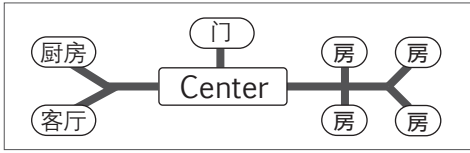
지구상의 모든 집은 인간의 생활을 制約하고 規定하지만, 그 집은 모두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주거문화에 맞춰 살림살이의 터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파트 역시 예외일 수는 없겠다. 60여 년 전, 유럽의 고층집합주택 모델을 들여온 아파트는 당연히 한국의 傳統的인 주거양식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大半이 ‘아파트人生’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 고층집합주택이 그 사이 不斷히 토착화의 길을 걸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적 土着化의 모습은 우선 아파트의 平面構成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그림 1의 방 4개짜리 平面을 보면, 거실을 중심으로 이를 둘러싸면서 방 4개와 주방, 식당, 현관, 욕실이 配置되어 있다. 이른바 4LDK 아파트의 典型的인 간살이다. 방이 3개인 아파트 역시 방이 있던 한쪽 자리를 현관과 계단실이 차지했을 뿐 동일한 구성이다. 서양이나 일본의 아파트와 비교해보면 그 特徵이 뚜렷해진다. 서양 아파트는 가족 共用空間인 리빙룸과 다이닝룸, 키친을 個人空間인 베드룸과 領域的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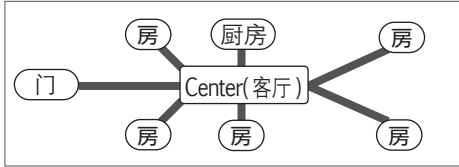


그림1: 3실형과 4실형 평면(마도리)

1960年代 西歐式公寓



1990年代 韓國式公寓



1930年代 改良韓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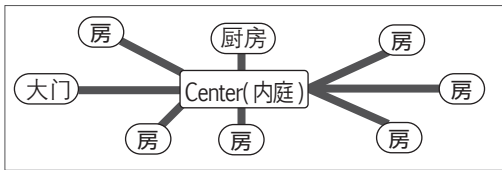


그림2: 아파트와 한옥의 동선비교

일본 아파트의 경우는 前面的 幅이 좁고 긴 平面 형태 속에 거실과 방이 内部 복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한국 아파트는 대개 가족 共用空間과 個人空間의 領域的 区分 없이 居室을 다른 공간들이 둘러싸고 있다.

한국 아파트의 이러한 空間構成은 주로 1930년대에 지어진 都市型 韓屋(한옥)<sup>7</sup>을 본뜬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래의 그림 2에 보이듯이 골목에서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内庭(마당)으로 연결되고, 거기서 안방, 大廳(마루), 건넌방, 부엌, 문간방, 便所 등으로 갈 수 있는 改良韓屋의 動線 형식이 再現된 것이다. 중심에 있는 마당을 거실로 바꾸면 아파트 平面과 별로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겠다 [서윤영 2007:115-117]. 거실을 통해 採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방에서 거실의 넓은 開放感을 느끼는 것이나, 거실이 모든 방을 연결하는 動線空間(센터)의 역할을 하는 것은 都市型 韓屋의 마당과 똑같다.

보다 넓고 시원한 空間感에 대한 욕구가 都市型 韓屋에서 아파트로 이어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거실 중심의 平面構成이 고층집합주택을 도입한 初期부터 一般化한 것은 아니다. 한국의 아파트 역시 처음에는 그림 2의 「1960년대 유럽식 아파트」와 같이 居室領域과 寢室領域이 구분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다가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70년대 중반 이후, 거실을 寢室이 둘러싸는 방식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아파트 수요자들이 領域 分離型보다 居室 中心型 구성을 選好했기 때문이다. 後者가 前者보다 살림집을 넓고 밝게 보이는 效果가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요컨대, 한국 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은 居室 中心의 開放的 공간구성이며, 그것은 재래의 都市型 韓屋(한옥)과 서양 아파트의 간섭이 서로 衝突하고 融合하여 성립한 것이다 [朴寅碩 2013:196-200].

한국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을 흔히 ‘食口’라고 말한다. 한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개개인의 私生活보다는 이 식구의 疏通과 融合을 우선시하는 게 한국의 家族主義 문화이며, 그것이 반영된 게 위의 居室 中心型 空間構成이라고 보인다. 가령, 아파트에 사는 한국인 치고, 어릴 적에 兩親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한두 번 들어보지 않은 이는 아마 없을 것이다. “방에 있지 말고 마루로 나오라.” 거나 “마루에서 방이 좀 들여다보이면 어때서. 뭐 못 볼 거라도(봐서는 안 될 거라도) 있나? 그리 신경이 쓰이면 닫든가.”와 같은 것 말이다. 게다가 “문을 닫아도 시끄러워 공부 안 된다고? 아, 알았어, 텔레비 끄면 될 거 아니야.” 아파트 마루에서 뉴스를 보던 아빠나 드라마를 보던 엄마가 이처럼 불평을 투덜거려도 통하지가 않는다. “에 공부가 중요하지, 그까짓 텔레비 보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러한 가정 내의 일상적 대화 역시, 成員들의 취미생활이나 프라이버시보다는, 대학입시를 위한 ‘공부’와 같은 ‘家庭의 大義’가 우선임을 잘 보여줄 것이다.<sup>8</sup> 이 한국적 家族主義 문화의 背景과 原因에 대해서는 금후 精緻한 論議가 필요하겠지만, 그 ‘열린’ 居室(마루)에서 食口들과 어울리기 쉬운 살림집이 한국의 아파트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다음, 溫突(온돌)의 난방장치 역시 아파트의 한국적 土着化를 보여주는 好例의 하나다. 익히 알려진 대로 온돌난방은 아파트 도입 초기부터 큰 시뮬거리였다. 고층집합주택에 그것을 집어넣는 게 기술적으로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서구의 살림살이 방식을 洗練된 生活樣式으로 여기는 風潮가 강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재래의 푸세식 화장실과 아궁이 부엌은 打破의 대상이었다. 비합리적이고 非衛生的인 살림살이의 대명사였고, 이를 대체할 水洗式 화장실과 입식부엌이 현대적 住居生活의 표상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아궁이 부엌과 연결된 온돌은 당연히 배척해야 할 것이었지만, 事情은 그리 단순한 게 아니었다. 사람들이 ‘깨끗한’ 水洗式 화장실과 입식부엌은 비교적 손쉽게 받아들이면서도, ‘따끈따끈한’ 온돌방만은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麻浦아파트의 경우, 본디 온돌방 없이 中央集中式 난방으로 라디에이터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세대별 練炭보일러 방식에, 居室에는 라디에이터를 세우고, 방에는 溫水코일을 바닥에 깔아 온돌을 설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중앙난방 시스템이 실현된 漢江아파트에서는 溫突房 없이 집 전체에 라디에이터를 설치했으며, 盤浦 1 단지의 경우는 안방만 溫突을 깔고 나머지 방들과 거실은 모두 라디에이터 난방으로 했다. 하지만 거주자들이 如前히 온돌방을 선호하자, 나중에는 중앙난방의 단지에서도, 안방뿐 아니라 모든 침실을 온돌방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만 라디에이터 난방을 並行하는 방식이 한동안 이어졌다. 이러한 韓洋折衷의 난방방식은 중대형 아파트에서 8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다가, 80년대 후반부터는 집 전체에 溫突을 까는 게 보편화했다 [朴寅碩 2013:211-212].

이처럼 고층집합주택에 溫突을 接木한 한국 아파트살이의 獨特함은 그 起居樣式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다. 한국의 모든 아파트는 立式부엌을 갖추고 있고, 대부분의 家口가 식탁과 책상, 소파, 침대 등을 사용하고 있다. 아파트 생활자들의 起居 스타일은 더 이상 古來의 座式이 아니라, 立式이라고 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아파트에 立式家具들이 가득 차 있다 하여, 좌식생활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온 食口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 그 食卓 밑을 보라. 아마도 한두 사람은 의자 위에 한쪽 다리를 세우고 앉거나, 양반다리를 하고 있을 것이다. 또 식탁에서 밥을 먹고 나서 居室 바닥으로 내려와, TV를 보며, 食後의 다과를 단란하게 즐기는 것도 자주 접할 수 있는 일상의 모습이다. 혹은 食후를 넘기고 상을 차려 거실이나 방에서 밥을 먹는 경우나, 손님에게 차 접대를 居室 바닥에서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나아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한국의 남자들, 특히 아저씨들의 視聽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라. 이삼십 분 뒤 소파에 머리를 기대고, 따뜻한 거실 바닥에 반쯤 누워 있는 그들의 모습이 쉽게 떠오를 것이다. 그러다가 아예 한 손으로 머리를 괴고 옆으로 누워서 TV를 보려는 생각이 든다면, 어느새 일어나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는다. 이처럼 소파와 거실 바닥 사이에서 앉았다 누웠다가 되풀이하는 이가 한국에는 참으로 많다. ‘따끈따끈한 아랫목에 등을 지지고 싶은’ 한국인의 習性이 은연중 발현한 것으로, 근년 流行하는 찜질방에서의 뒹굴뒹굴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한국의 아파트살이는 좌식생활의 持續 속에 입식생활의 便利함이 결합된 것으로, 이 異種混淆(하리브리드)의 起居를 가능케 한 基盤이 온돌난방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傳統과 現代의 折衷, 혹은 한국적인 것과 서구적인 것의 混成은 위의 두 가지 이외에도 散見된다. 가령, 욕실에 욕조나 샤워기가 있어도 플라스틱 바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흔하며, 다용도실<sup>9</sup>에서 세탁기와 함께 빨래판을 사용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안방에 딱딱한 돌침대를 놓거나 침대에 전기장판을 깔고 자는 사람들, 심지어 침대를 들여놓고도 방바닥에 이부자리를 깔고 자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리고 베란다에 놓인 장독들과 화분들, 옛날의 김치독을 현대화한 김치냉장고, 최근에는 우물 모양의 천장과 서가래 스타일의 천장에 이르기까지, 한국적 土着化의 모습은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아파트의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한국의 아파트는 토착화를 追求하는 동시에 현대 한국社會의 構造變化에도 민첩하게 적응해 왔다. 아파트 공간의 家族政治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시대의 한옥은 生理學的 社會질서를

공간적으로 再現하고 있었다. 그리고 女性空間과 男性空間으로 대별되는 그 내부 공간에서 으뜸은 역시 사랑이었다. 그것은 집안 전체를 관장하는 일종의 관습티콘이자 외부로 열린 정치적, 문화적 공간이었다 [南根祐 1996:85-89]. 물론, 실제 生活의 기능적인 면에서 사랑이 안채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아니지만, 한옥은 첸더나 世代의 측면에서 볼 때, 다분히 사랑의 남자 成人이 중심이었다. 家父長的 권력구조를 재생산하는 공간이 바로 사랑으로 象徵되는 양반의 韓屋이었다 [金鍾憲 2005:17].

불과 몇 십 년 전만해도 한국의 단독주택에서는 같은 방 안에서조차도 남성과 여성의 空間上의 분리가 뚜렷했다. 6, 70 년대를 背景으로 한 韓屋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큰방 (안방) 하나가 안과 밖이라는 가상의 라인을 경계로 ‘아버지의 空間’ 과 ‘어머니의 空間’ 으로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다. 前者는 앉은뱅이 책상을 중심으로 책이나 라디오, 신문, 도장 등이 놓인 ‘질서공간’ 이었고, 後者는 식당, 거실, 응접실, 간이화장실 (요강) 등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萬能空間’ 이었다. 이러한 공간구획의 모습은 집안의 정보 수집권과 분석권 및 의사결정권 등이 아내가 아닌 남편에게 偏重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全寅權 2003:23-28].

이에 비해 아파트의 内部空間은 가족성원들 사이에 보다 평등한 社會關係를 지향한다. 그 점, 한국의 아파트는 첸더나 世代와 관련한 한국사회의 변화에 대해 비교적 능숙하게 대응해왔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게 남성 성인공간의 縮小다. 남성의 專用空間이었던 사랑이 접대와 가족단란의 場인 마루로 흡수되었고, 안방이 부부 공용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한옥을 비롯한 단독주택의 좌식생활이 아파트의 입식생활로 바뀐 것도 兩性平等의 시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예전에는 사람이 불박이고, 밥상이나 다기와 같은 것들이 이동했다. 그 家具들을 옮기는 일은 대개 女性的 몫으로, 자연스레 남성이 女性的 상전이 되었다. 하지만 아파트살이에서는 소파나, 식탁, 의자와 같은 ‘身體家具’ 가 일상화했고, 결과적으로 이 역시 페미니즘 效果를 발휘하게 되었다. 남성 역시 身體家具를 이용할 때 스스로 移動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성원 모두가 男女 老少 불문하고 상대적으로 對等해진 것이다 [田南一 2002:7-9].

살림집의 내부공간에서 性的 不平等의 감소를 劇적으로 드러내는 곳은 다름 아닌 부엌이다. 한옥이나 단독주택에서 여성이 調理하던 공간은 위치나 크기 면에서 대단히 劣勢였다. 한옥의 부엌은 地面을 움푹 파서 만들어, 대개 마당의 높이보다 한두 자 정도 낮았다. 그리고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와 먼지가 음식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했기에, 바닥을 일부러 울퉁불퉁하게 만들었다. 그러다가 70 年代初, 부엌은 아파트살이에서 ‘주방’ 으로 昇格했다. 입식으로 설계되어 주택 내 다른 공간과 높이가 마침내 같아진 것이다. 동시에 난방이 分離되어 주방은 炊事 전용공간이 되었고, 汲排水가 합쳐진 싱크대도 보급되었다. 예전 지저분했던 부엌은 실험실처럼 정리되었고 식사공간도 따로 분리되었다. 결과적으로 부엌 역시 살림집에서 어엿한 내부공간의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威翰姬 2005:54-60]. ‘사내가 부엌에 들어가면 고추가 떨어지는’ 禁斷의 부엌에서, 밥을 먹으려면 그 누구든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비교적 平等한 열린 공간이 된 것이다.

## 5. 맺음말

이상, 서울 고층집합주택의 전개 과정을 간단히 개관하고, 한국인이 그것을 選好하는 까닭을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고층집합주택이 한국적 아파트로 土着化하는 양상과 아파트살이의 일단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이 아파트의 將來와 관련하여, 줄레조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서울의 고급 아파트단지가 멀지않아 각종 都市問題의 온상이 되리라고 예견했다. 도시 중산층도 아파트가 더 이상 그들의 ‘구별짓기’ 를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그것을 미련 없이 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줄레조 2004:262-263].

과연 그럴까? 나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아파트는 대부분 自家

소유형태여서, 재산으로서의 經濟的 價值가 하락하는 상황이 그냥 방치될 리 없기 때문이다. 昨年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대책, 즉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 이 그 端的인 보기다. 또 좁은 국토에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토지이용의 效率性を 계속 제고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都心의 슬럼화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을 통해 토지이용의 리사이클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실제 한국의 아파트 교체수명은 27년에 불과하다. 영국 128년, 미국 72년, 일본 54년 등에 비해 그 수명이 4분의 1 내지 2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日刊紙『머니 투데이』2014년 9월 3일].

그리고 한국의 보통사람들은 아직도 아파트에 배가 고프다. 그것은 경제적인 부가가치나 사회적 차원에서 이미 최고의 人氣 있는 주거공간으로서 뿌리를 내린 상태다. 수익성과 안전성, 換金性, 差別性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구의 停滯 내지 減少, 고령화시대의 개막, 1인 家口의 급증, 저성장체제의 도래는 교육, 문화, 복지, 교통 등의 제 측면에서 주택시장을 都心의 아파트로 집중시킬 공산이 매우 크다 [全相仁 2009:172-173].

이처럼 앞으로도 지속될 ‘아파트 전성시대’를 전망하며, 아울러 冒頭에서 언급한 ‘논두렁 아파트’와 ‘밭두렁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농어촌 필드의 現實을 맞이하여, 한국의 민속학은 그 ‘普通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묻고, 또 그 ‘당연한’ 生活世界를 어떻게 포착해야 하는 것일까? 아파트라는 關閉式 日常의 微視的 現場과 共同體의 連帶의 다양한 실천과 시행착오를 어떻게 對象化할 것인지, 이번 일본민속학회의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그 방법적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삼가 바라마지 않는다.

## 注

- 1 한국의 전체 주택 가운데 아파트의 비율은 2005년에 52.7%로, 이 해 처음으로 과반수를 넘긴다. 서울시의 경우, 1985년에는 26.1%였다가 20년 뒤인 2005년에는 54.2%로 倍增한다. 자세한 것은 서울시청의 서울統計年報 참조.
- 2 지금까지 고층집합주택(아파트)에 대한 연구는 建築學이나 都市計畵學, 消費者住居學, 住居環境學, 不動產學 등과 같은 應用科學이나 實用學問 쪽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인지 “時代精神이나 社會意識에 대체로 무심한 채 ‘비성찰적인 경험적 연구’에 매몰되는 경향이” 이 강하고, 결과적으로 “行政의 需要나 자본의 논리에 쉽게 安住해온 측면마저 없지 않았다.” [全相仁 2009:30] 본 報告에서는 都市景觀을 중심으로 서울의 ‘아파트共和國’을 分析한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즐레조(Valérie Gelézeau), ‘團地共和國’의 團地化 戰略을 考察한 朴寅碩, 고층집합주택을 內視鏡으로 삼아 ‘아파트社會’의 住居社會學을 추구한 全相仁, 한국 근현대의 住居社會史를 꼼꼼히 엮은 田南一 등의 연구 성과를 주로 참고했다.
- 3 康俊晚(강준만)은 2005년 한 週刊誌 칼럼에서 韓國社會를 ‘아파트공화국’이라 命名하면서 그것을 미스터리로 보았다. 그리고 2007년, 발레리 즐레조의 박사학위논문이 『아파트공화국』이라는 다소 煽情的인 題名으로 翻譯, 出刊되었다. 異邦人의 이 아파트연구는 바로 매스컴의 주목을 받아, 이후 ‘아파트공화국’은 눈 깜짝할 사이에 한국의 住宅問題와 都市問題를 象徵하는 말이 되어버렸다. 高層集合住宅(아파트)에 대한 韓國人의 憧憬과 慾望 및 嫉視와 非難, 自嘲 등을 含蓄한 流行語가 된 것이다.
- 4 統計廳의 2006년 不定期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居住者의 平均 總 財産이 4억 88만 원으로, 單獨住宅 경우의 2억 722만 원, 連立 및 多世帶住宅 경우의 1억 4,658만 원을 2~3배 능가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國家統計 포털의 ‘住宅種類別 資産 現況’ 參照.
- 5 2006년 政府가 不動產 가격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고 지목한 7개 지역, 積穀 急騰의 牽引車 역할을 한 서울시의 江南 三區(江南區, 瑞草區, 松坡區)와 陽川區 木洞, 그리고 京畿道의 盆塘, 坪村 新都市와 龍仁市를 말한다.
- 6 政府의 2005년 住宅需要調査에 의하면, 한국의 平均 居住期間은 아파트가 많은 都市地域일수록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이 5.4년, 京畿道가 6년, 仁川이 6.8년인 데 비해 地方都市는 9.9년, 郡 단위 地域은 15.7년이다.
- 7 都市型 韓屋의 핵심은 內庭(마당)이다. 住宅 한가운데 內庭(마당)이 있고 다른 모든 방들이 ㄷ字 혹은 ㅁ字 型으로 그것을 둘러싸며, 또 그것을 향해 열려 있는 空間構成을 갖는다. 서울의 觀光地로 有名한 北村 韓屋마을의 집들이 그 좋은 보기다.
- 8 아파트 團地 內에 커뮤니티 施設로 ‘공부방’을 설치하거나, 團地 周圍에 私設의 ‘讀書室’이 많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 9 아파트의 부엌에 딸린 자그마한 공간으로, 洗濯機를 놓거나 그 外의 多樣한 用途로 使用할 수 있다. 大概 이 多用途室은 暖房이 되지 않고, 室外用的 슬리퍼를 신고 나가게 되어 있다.



## 参考文献

- 康俊晚, 「아파트 共和國의 미스터리」, 『한겨레 21』, 2005년 12월 21일.
- 康仁鎬 외, 「우리나라 住居形式으로서 아파트의 一般化 要因分析」, 『大韓建築學會論文集』 13-9, 大韓建築學會, 1997.
- 金鐘憲, 「韓屋空間의 文化政治學」, 『湖南文化研究』, 湖南文化研究所, 2005.
- 南根祐, 「穀靈崇拜思想」, 『韓國의 民俗思想』, 集文堂, 1996.
- 大韓住宅公社 編, 『住宅都市 40年』, 大韓住宅公社, 2002.
- 朴寅碩, 「아파트 韓國社會 - 団地 共和國에 갇힌 都市와 日常-」, 玄岩社, 2013.
- 발레리 줄레즈, 『韓國의 아파트 研究 - 서울지역 7개 아파트단지 景觀 分析을 중심으로』, 高麗大學校 出版部, 2004.
- 발레리 줄레즈, 『아파트공화국』, 후마니타스, 2007.
- 서윤영, 『우리가 살아온 집, 우리가 살아갈 집』, 歷史批評社, 2007.
- 林瑞煥, 『住宅政策 半世紀 - 政治經濟環境 變化와 住宅政策의 展開過程-』, 기문당, 2005.
- 田南一, 「韓國 住居 内部空間의 近代化 要素에 關한 研究」, 『韓國家庭管理學會誌』 20-4, 2002.
- 田南一 외, 『韓國住居의 社會史』, 돌베개, 2008.
- 全寅權, 『男子의 誕生』, 푸른숲, 2003.
- 全相仁, 『아파트에 미치다 - 現代韓國의 住居社會學』, 이숲, 2009.
- 咸翰姬, 『부엌의 文化史』, 살림, 2005.